

신규채용 희망기업 74% “여성 채용할 것”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 군 지역 입주업체 대상 “보건분야 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상 여성의 섬세함 필요”

도내 7개 군 지역 내 입주업체들의 68%가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최근 7개 군(임실, 순창, 부안, 무주, 진안, 장수, 고창) 지역 내 전라산업 등 관련분야 인사담당자 21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구인기업 신규 채용 수요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구인기업 DB분석 결과 2017년 신규 채용 계획 있는 기업이 68%로 나타나 구인·구직 미스매치만 해소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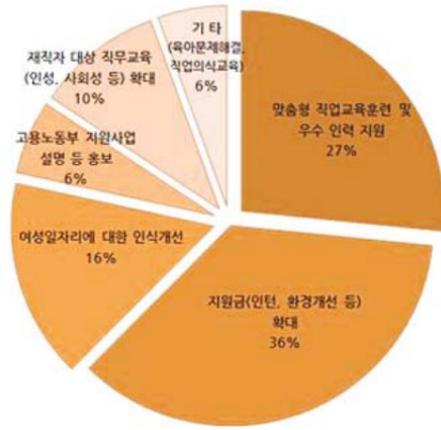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에서는 74%가 여성을 채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식품제조분야,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군 지역의 특성상 여성의

섬세함·꼼꼼함·성실함 등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기업의 39%는 연령에 관계없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혀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꾸준히 직업의식과 직업능력개발을 한다면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채용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가 35%,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가 30%로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 특성상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여성인재가 부족하고 소규모 기업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취업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내용을 묻는 문항에는 지원금(인턴, 환경개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



선 등) 확대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우수여성인력 지원이 27%를 차지하였다. 신수미 센터장은 “구인처 발굴 및 1:1 통

행면접 등 지역 내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업살개사 운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겨울방학,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해요”

정읍기적의도서관, 초등 저학년 대상 ‘그림책과 놀자’ 매 주말 자원 활동가 이야기방식 프로그램도 진행

정읍기적의도서관이 겨울 방학기간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학년과 유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책과 놀자”는 동화구연 자적증 과정의 자원 활동가들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와 관련한 책 놀이 활동이다. ‘친구들의 소중함’, ‘겨울’, ‘달팽이 관찰’, ‘손 씻기’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2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는 자원 활동가들이 책 읽어

주는 이야기방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격주로 운영되던 영화 상영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 ‘리틀 고비’, ‘빅 히어로’ 등 인기 있는 영화를 상영하여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찾고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책과 함께하는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특히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직접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 눈 높이에 맞춘 강의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적의도서관(☎063.539-6454)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6년 책 읽는 가족’

박희진·이현정·이설주 이정미씨 가족 선정

전북도청도서관, 인증서 수여

전북도청도서관(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은 지난 3일 2016년 책 읽는 가족으로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희진, 이현정, 이설주, 이정미씨 가족을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관을 수여했다.

책 읽는 가족은 한국도서관회가 주관하는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으로 가족 단위의 모범적 독서생활을 권장하고 책 읽는 사회분위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북도청도서관은 그동안 총 25가족을 선정했다.

도청도서관은 이번 선정은 도서대출량, 가족참여도에 따른 정량평가 외에

도 사서가 직접 적은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별도의 심사회의를 거쳐 선정 유무를 최종 확정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까다로운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현정씨 가족은 “도서관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 행복했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이 아이들의 바른 인성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청도서관 김인태 관장은 “2017년에도 도서관이 앞장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기획해 도서관이 온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공모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가 2017년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를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전북지역 미술가로 모집인원은 총 2명 내외이다. 분야는 회화·한국화·조각·설치·뉴미디어 등으로 현대미술 전 부문에 걸쳐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6일 6시까지, 입주신청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작품소개용 이미지 파일 등 서류를 이메일 history700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합격자는 오는 17일 서류심사를 후 개별통지 하며,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6개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www.jma.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학예연구사 063-290-6874. /정해은 기자

군산근대박물관, 내일로 티켓 소지자 입장료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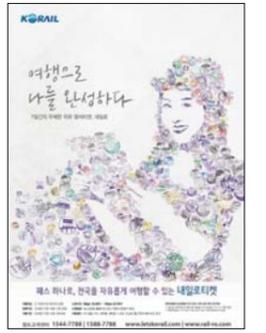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내일로(철도 자유이용패스권) 티켓 소지자에 대하여 박물관 입장료 할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 중인 내일로는 만 25세 이하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티켓을 소지한 경우 이용기간 동안 대상역차의 입석 및 자유석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열차 이용혜택 외에도 전국의 숙박, 맛집, 관광지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품으로, 군산의 근대화사업과 박물관을 홍보하고자 두 기관이 협력 추진하게 됐다.

박물관 및 벨트회사실 입장권 구입 시 내일로 티켓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연령에 따른 추가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gunsan.go.kr) 공지사항 또는 대표전화(☎063-454-787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공연 & 전시

5일 군산예술전당서 군산시립합창단 신년음악회

군산시립합창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이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신년음악회를 오는 5일 저녁 7시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하버드 글리클럽 합창단’을 초청해 군산시립합창단과 함께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버드 글리클럽 합창단은 1858년 학생들에 의해 설립된 미국 내 가장 오래된 대학 합창단 중 하나로 100년이 넘도록 샌더스 극장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1921년 스트리츠버그 성당, 1973년 바티칸 할렐시 공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해왔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립합창단이 ‘Chorus’, ‘Ubi Caritas et amor’ 등을 들려주고, 하버드합창단이 ‘Demon in My View’, ‘Scit cervus’, ‘we are’ 등을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아리랑’과 ‘America the Beautiful’을 연합합창으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무료로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능하며, 헌정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음악회는 시민들의 새로운 꿈과 도전을 합창을 통해 응원하고자 기획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시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2017년에 더욱 발전하는 시립예술단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4일〉



▷쥐띠

4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른다.
60년생: 주변 사람들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경정로 인해 고인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84년생: 일적인 능률은 오르나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띠

49년생: 양보하면 후에 이득이 따르니 마음을 다스려라.
61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니 속에 있는 말을 삼가라.
73년생: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다.
85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말속에 덫이 있다.
62년생: 타인의 이목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4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이다.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



▷토끼띠

51년생: 놀라거나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다.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이다.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된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티끌하고 하는 일의 방향을 잃지 마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난다.
64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성사신 일이 발생한다.
76년생: 뒷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니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88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베풀면 덕이 쌓이니 후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77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야 한다.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뒷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경미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



▷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문서에 결함이 비추니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9년생: 건강에 대한 신경써라. 유행성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여 나서지 말라. 좋은 일하고 원망 듣는 운이다.
68년생: 뒷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
92년생: 손이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69년생: 변동을 가져온 흥한일이 많으니 기존의 상황 그대로를 유지시켜라.
81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93년생: 좋은일 했다가 뺏기는 격이니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개띠

46년생: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58년생: 문서에 좋은 운이 들었으니 계약을 하기에 좋고 이동하기에도 좋은 운이다.
7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지나 투기는 불리한 운이다.
8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니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돼지띠

4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59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니 모임을 갖거나 화합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71년생: 소울했던 동기간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83년생: 매사 서두르며 불리하니 급할수록 차분해지는 것이 좋겠다.